

미국에 전북 바이오 기업 진출 교두보 마련

바이오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삼고 관련 생태계 육성에 나선 전북자치도가 지난해 국내외 우수 연구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 데 이어 최대 바이오 시장인 미국으로 외연을 확장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미국 보스턴과 미니애폴리스를 방문해 바이오 글로벌 협력거점 구축을 위한 실무 협의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장에는 도를 비롯해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전북테크노파크, 도내 바이오기업 등이 함께했다. 미국 바이오산업의 중심지인 보스턴에서 협력기반을 다지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전북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확장을 본격화하기 위한 행보다.

이번 출장의 핵심은 미국 보스턴 CIC(Cambridge Innovation Center)에 전북 협력거점을 마련하고, 재미한인재약인협회(KASBP),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미국지사와 함께 도내 기업의 미국 진출을 지원하는 기반을 구축하

도, 유럽 이어 미국에 바이오 글로벌 기술협력 네트워크 구축

보스턴에 전북 협력거점 추진... 세계적 의료기관과 업무협약

는 것이다. 특히 CIC는 생명공학과 의료기술에 특화된 글로벌 혁신창업 허브로, 전북 바이오기업의 기술사업화, 네트워크 확장, 투자유치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점이다.

방문단은 하버드 의과대학 소속 메사추세츠 종합병원(MGH)을 방문해 최첨단 바이오 연구 현황을 공유하고, 인력교류와 공동연구 방안을 논의했다. MGH는 U.S. News & World Report 2024 평가에서 미국 내 종합병원 2위에 선정된 세계적인 의료기관이다.

이어 미국 보스턴에 위치한 브리검 여성병원(BWH) 산하 연구소와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줄기세포, 인공지능, 조직공학 분야의 국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연구소장인 신수련 교수는 하버드 의대 조교수이자 해당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으로, 향후 연구자료 공유와 인

향후 미국 및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 개척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미국 외에도 독일 자를란트의 KIST 유럽연구소 내에 글로벌 바이오기술협력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번 미국 협력 확대는 유럽과 함께 양축 글로벌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기업의 해외진출 리스크를 줄이고 현지 전문가 컨설팅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원식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이번 미국 방문은 유럽에 이어 글로벌 바이오 시장의 중심지인 미국에 전북 바이오 기업들의 진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미국과 유럽을 잇는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현지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도내 기업의 해외진출 리스크를 경감하고, 오는 6월 개최되는 BIO USA 2025에 도내 기업들과 함께 참가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정읍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위해 써주세요” 전북특별자치도는 11일 한국기독교장로회 군산성광교회가 정읍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위해 성금 1,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기탁식은 이날 전북도청에서 열렸으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황철호 북지여성보전국장, 차상연 군산성광교회 담임목사, 한영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북지회장 등이 참석해 피해 주민들을 위한 온정을 나눴다.

전북자경위, 경찰복지+지역보건 함께 챙긴다

전주병원·호성전주병원과 손잡고 지역 치안·보건 협력 강화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11일 전주병원·호성전주병원(의료법인 영경의료재단)과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들의 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안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복리후생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한 일환으로, 협약 병원이 건강검진, 의료서비스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보건교육 및 치안시책 홍보 등 공공목적 활동에도 상호 협력하기로 해 민·관 협력 기반의 지역안전망 강화가 기대된다.

협약식에는 이연주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중준 전주병원 의료원장 등 양 기관 관계자 8명이 참석했다



며,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의 유관기관 간 협력방안과 지역 안전 체계 개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전북자경위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민간 전문기관과의 상생 협력 모델을 지속 발굴하고,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의 근무 여건 개선과 지역사회 안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조기 대선 국면, 도정 현안 추진 골든타임으로” | 김관영 도지사, 도정 정비·현안 추진력 확보 총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조기 대선에 돌입한 지금, 도정 현안을 정비하고 추진력을 확보할 골든타임으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김 지사는 “조기 대선은 도정 현안 추진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며, “올림픽 유치, 대광법 개정안 후속조치 등 산적해 있는 내부 현안에 추진력을 마련하고, 연초 세운 실과와 출연기관의 목표가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는 지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제1회 추경과 관련해 “민생경제 활성화와 올림픽 유치 대응 등 주요 현안의 신속한 예산 반영을 위해 추경 시기가 앞당겨진 만큼, 핵심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도의회의와 소통을 강화해 필수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김 지사는 “도정 주요 현안 중 지역 정치권에서 관심도가 높고, 공감대 형성이 되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협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관심 현안을 탐색해 적극 건의”할 것을 당부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11일 간부회의를 통해 “조기 대선에 돌입한 지금, 도정 현안을 정비하고 추진력을 확보할 골든타임으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특히, 전북사랑도민증 홍보와 관련해, “전북사랑도민증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 지역의 여행 등을 통해 생활인구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고 강조하며, “전북 외 거주하는 친구, 친척, 지인

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가입을 독려”할 것을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출연기관의 경영상황 점검과 관련해 “매년 시행하는 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부분들은 반드시 개선하고, 부족했던 결과는 반면교사 삼아서 올해 발표되는 결과에서는 더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산하기관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할 것”을 주문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지역 기술기업 기업 투자 활성화 적극 나서

과기정통부-전북자치도·경상북도, 지역기술투자 활성화 협약

전북특별자치도, 제5-3차 영호남권 연구개발특구펀드에 추가 출자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와 함께 지난 11일 대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지역 기술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역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확장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

를 개최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1월 500억원 규모로 결성된 제5-3차 연구개발특구펀드인 ‘영호남권 특구펀드’에 전북특별자치도와 경상북도가 각각 15억원과 30억원을 추가 출자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지역 기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정부와 지역이 협력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북도는 연구개발특구펀드를 활용해 지역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와 기술사업화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 투자자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기술기업에 실질적인 자금 지원과 사업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연구개발특구펀드를 활용한 지역 혁신기업 지원 사례 공유 △지자체별 기술투자 촉진 전략 논의 △벤처캐피탈의 지역 투자 확대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지역별 기술 사업화의 현황과 투자 유치의 어려움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만호 기자

“저출생 대응 핵심, 놀이권 보장”... 공공형 키즈카페 조성 정책세미나

“전북형 정책 구체화 최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술지 의원(비례)이 지난 1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공공형 키즈카페 조성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최영열(기획행정위원회)·임승식(농업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과 심미경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동숙 전북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 아동보호팀장, 조막대 전북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김해숙 정읍시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장 등 각계의 전문가가 참여했고, 심미경 박사가 공공형 키즈카페와 관련된 전남의 사례를 발제한 뒤 종합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심미경 박사는 발제를 통해 “최근 기후 변화와 급격한 도시화로 실내 어린이 놀이 공간인 키즈카페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도·농간 경제적 여건 차이로 인해 놀이권 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라며, “저출생 대응 정책은 아이를 낳는 것을 넘어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이기에, 공공형 키즈카페 정책이 새로운 해법으로 추

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종합 토론 과정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도·시군 협력 사업 발굴 △포용적 아동지원(일반·장애아동 평등한 이용 보장)을 위한 통합놀이공간 조성 △가족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 구성 △기존 아동 놀이 권리 사업 분야 세분화 등이 대책방안으로 논의되었다.

김술지 의원은 “현재 전북보다 상황이 나은 서울시, 인천시 등 대도시들도 공공형 키즈카페를 저출생 대책의 핵심으로 추진 중이기에 위기감을 느껴야 한다”라며, “오늘 논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전북형 키즈카페 정책이 빠른 시일 안에 구체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이만호 기자

도의회, 전개공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지난 10일 전북개발공사 김대근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위원들은 김 후보자가 공공영역 경험 및 정책, 현안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 등 미흡한 점과 보유재산 누락, 중재회 회피 의혹 등 보완이 필요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난 30여 년간 민간 건설 분야에서의 오랜 실무 경험과 경영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과 조직 혁신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적격’ 의견을 담아 보고서를 채택했다.

또한, 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지적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소명을 요구했다. /이만호 기자

도, 문화도시 간 상생협력 모델 구축 ‘맞손’

전주·익산·완주·고창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1일 고창 신재호 관소리공원 세미나실에서 ‘전북 문화도시 상생협력 네트워크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도내 4개 문화도시 간 본격적인 상생협력을 위해 머리를 맞대었다.

이번 회의는 전주, 익산, 완주, 고창 등 법정 문화도시를 중심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의 실질적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자리로, 전북자치도 이경영 문화산업과장, 전북연구원 장세길 박사, 강

승진 전 춘천문화도시센터장 및 시군 문화도시 관계자 등 11명이 참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문화한국 2035’의 ‘문화도시 3.0’ 정책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기존 문화도시 체계를 개별 도시 중심에서 광역 단위로 전환하고, 협력형 거버넌스 문화 생태계로 재편하는 것이 ‘문화도시 3.0’의 핵심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전북은 광역 문화도시의 새로운 모델을 실무 현장에서부터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만호 기자

도내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확대

군산 키움병원 신규 지정

전북특별자치도는 평일 야간과 휴일에도 진료 받을 수 있는 소아 야간·휴일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을 신규 지정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도는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아 야간·휴일진료기관을 확대해 왔으며, 14일 군산 키움병원을 신규 지정함으로써 5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하여 운영하게 된다.

/이만호 기자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이 없었던 군산시에서는 지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였으며, 사업계획서 및 현지점검 등 심사 결과를 검토 후 도에서 키움병원을 신규 지정하게 됐다.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은 지정된 진료요일 및 진료시간에 따라 주로 경증 질환을 진료하며, 응급상황 시 지역 응급의료기관 등과 연계해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특별안전 교육

전북지방환경청은 15일 오후 2시 군산새만금컨테이너센터에서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보유한 영업허가 사업장 310여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2025년 8월 7일 시행 예정인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개정 사항에 대해 업계 종사자들의 이해를 돕고, 법시행 전 필요한 준비사항을 빠뜨리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화관법 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분류체계, 취급량 및 위험도에 따른 영업허가 및 신고체계,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주기 차등화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 체계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사업장에서는 개정되어 시행 되는 법령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전북환경청은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내용 △화학사고 사례 공유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